



1

아슬아슬한데 편안... 조각과 가구의 긴장

서정민 기자

“침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침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내면에 스며들고, 공간과 시간 위에 천천히 내려앉으며, 마침내 사물의 깊이가 된다.”(최병훈의 작업노트 중)

8월 2일까지 조현화랑 서울과 부산에서 최병훈 개인전 ‘머무는 침묵’이 열린다.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미대 학장을 거친 최병훈은 국내 아트 퍼니처(Art Furniture)의 선구자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거나 소수의 전통 공예품만이 가구로 여겨지던 1980년대부터 ‘디자인’과 ‘예술’을 결합하는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다. 1990년에 홍익대 목공예과(현 목조형가구학과) 교수로 부임한 후에는 아트 퍼니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1993년 열린 첫 번째 개인전에서 ‘아트 퍼니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뿐 아니라 프랑스·스위스 등 유럽과 미국에서 꾸준히 전시를 열면서 한국적인 조형미의 아트 퍼니처를 선보이고 있다. 파리장식미술관(프랑스), 메트로폴리탄미술관(미국), M+ 미술관(홍콩), 비트라디자인미술관(스위스)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고 2020년에는 미국 휴스턴미술관 신관에 올라퍼 엘리아슨, 아이 웨이웨이 등 세계적인 거장 8명과 함께 ‘선비의길’ 작품 3점이 영구설치 됐다.

이번 ‘머무는 침묵’ 전시는 조선시대 ‘선비 정신’을 오늘의 조형 언어로 다시 사유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고 한다. “당시의 선비들은 오늘날처럼 단순한 전문가 또는 지식인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켰던 집단이죠. 아울러 절제된 생활 방식과 품격으로 내면의 깊이를 찾아가는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최병훈 개인전 ‘머무는 침묵’

국내 ‘아트 퍼니처’ 개척한 선구자
돌과 나무로 절제·겸양 미학 구현
‘선비 정신’ 현대 조형언어 재해석



2

1 물푸레나무와 자연석을 결합한 작품 ‘시작의 잔상 026-641’(2026). 2 자신이 작업한 아트 퍼니처 작품에 앉아 있는 최병훈 작가의 모습. [사진 조현화랑, 최병훈]

1996년 파리에서 첫 해외 개인전을 열 때부터 조선의 선비 문화와 정신은 최병훈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어였다. “예술의 본고장, 장식미술을 화려하게 꽃 피웠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경쟁할까, 내가 보여줄 세계는 무엇일까 고민했죠. 처음부터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들과 차별되는 조선 선비들의 절제와 겸양의 미학을 공부했어요. 조선조의 사방탁자나 백자 달항아리를 보면 화려한 꾸밈이나 과시가 전혀 없이, 아주 섬뜩할 만큼 단순한 미학을 보여주죠. 서양에선 1960년대에 도널드 저드 등에 의해 미니멀리즘 사조가 대두했는데 조선 선비들이 보여준 절제의 미학은 그보다 먼저였어요.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고, 절제된 태도 안에서 꾸미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래서 침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침묵은 사유로 연

결되고, 사유는 명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선비 정신이에요.”

결이 살아 있는 나무와 질감이 살아 있는 돌이 만난 그의 작품들은 선비들의 사랑방을 채웠던 조선 목가구가 그러했듯, 공간 안에서 바라볼 때는 자연을 닮은 ‘조각’이 되고 쓰임이 더해질 때는 실용적인 ‘가구’가 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규제, 규범, 가치... 세상에 절대 가치란 없어요. 내 작업도 ‘조각이냐 가구냐’ 하는 이분법에 머물지 않고 내가 판단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최병훈의 작품들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키워드들이 또 있다. 관계, 긴장감, 그리고 균형이다. 거칠고 차가운 돌과 부드럽고 따뜻한 목재, 자연 그대로의 불규칙한 다면체와 수직·수평의 단정함. 두 개의 상반된 소재와 조형이 주를 이루는 그의 가구들은 극과 극의 대립적 관계성이 만들어내는 침묵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온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시각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비로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간에 안착하면서 바라보는 이에게 균형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파리 골동품상에서 하나둘 저울을 사 모은 게 꽤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주 미묘한 디테일로 균형을 잡는 저울의 물리적 긴장감을 보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철학을 떠올립니다. 중간에 머물지 않고, 극과 극이 대립하는 모순 상황에서 서로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죠. 결국 아트 퍼니처도 기능성과 예술성이라는 두 가치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미학이 창조된 거죠.”

아슬아슬하면서도 편안한, 오래된 듯하면서도 새로운. 최병훈의 가구들이 만들어내는 묘한 분위기다.

Attention!



영화 호컴 베스트셀러 작가 옴은 부모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아일랜드의 외딴 호텔을 찾는데, 그 호텔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객실이 있다. 할로윈 밤, 사라진 호텔 직원을 찾아 옴은 봉인된 허니문 스위트 룸의 문을 열게 된다.

개봉 7월 22일 감독 다미안 맥카시

전시 형태의 시

학 20세기 후반 미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폴소프의 개인전. 초상화·정물화·누드 등 전통적인 장르와 사디즘과 마조히즘 등 당대 뉴욕의 도발적인 하위 문화를 결합해 사진 매체의 경계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험한 것으로 유명하다.

기간 7월 19일까지 장소 국제갤러리 한옥



뮤지컬 베토벤 베토벤의 음악을 대중적 뮤지컬 넘버로 재탄생시킨 무대. 3년 만에 대대적인 프 로덕션 재구성으로 돌아왔다. 러브라인 없이 고독한 천재의 내면에 집중한 서사, 폭발적 가창력의 박효신과 홍광호도 호평받고 있다.

기간 8월 11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